

## 여성가족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센터운영지원,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 1 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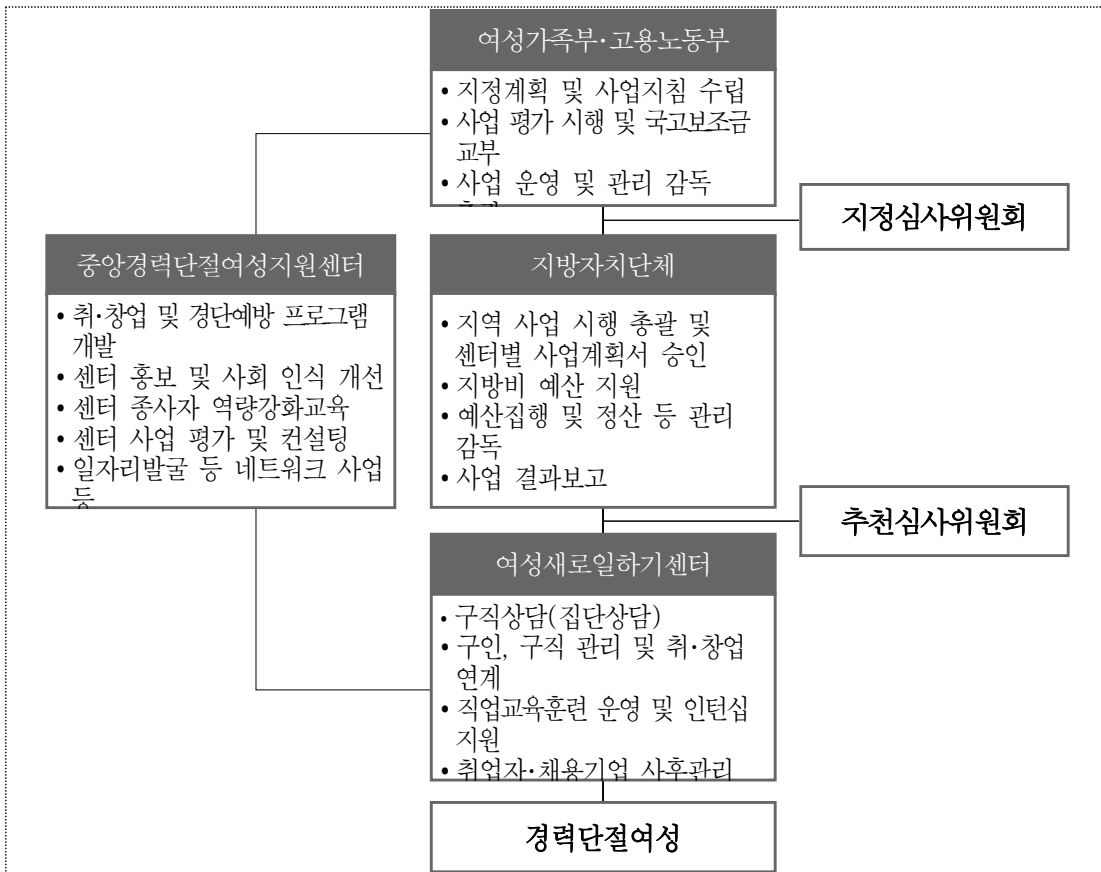
- ☐ (사업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 ☐ (사업내용)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 예산/재원: 25,226백만원('21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센터운영지원,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23,162	-	22,962 (99.1%)	25,226	2,064	8.9

- ☐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 주요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 □ 전달체계



##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 및 기업의 직장문화개선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 확대  
\* ('20년) 60명, 60개소 → ('21년) 89명, 75개소
- 사례관리 경력이음 서비스 시범운영 수행기관 확대  
\* ('20년) 20개소, 20명 → ('21년) 30개소, 30명
- 온라인 상담사 배치를 통한 커리어코칭 및 사후관리 등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확대  
\* ('20년) 44명 → ('21년) 45명

##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의 2020년 참여자는 총 418,075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31.6%,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41.1%

○ (성별) 여성 대상 사업으로 여성 참여자가 100%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중년이 50.3%(210,179명)로 가장 많고, 장년 27.5%(115,068명), 청년 17.1%(71,289명), 고령 5.2%(21,539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18,075 (100)	0 (0.0)	418,075 (100.0)	71,289 (17.1)	210,179 (50.3)	115,068 (27.5)	21,539 (5.2)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량지표별 결과

(단위: %, 일)

	취업률 (180일 이내)	알선 취업률 (180일 이내)	고용 유지율 (180일 이상)	취업 소요기간	임금수준
고용서비스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취업지원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2.1	7.8	54.9	114.5	80.0

## □ 만족도 조사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02	4.00	4.14	4.21	4.08	4.04	4.20	4.18	4.02	3.93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국정과제 18의 5번(여성, 경력단절 극복 및 당당한 재출발 지원) 추진과제 및 일자리창출 62(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 분류 사업이므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기조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
- (사업대상과 정책추진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은 성차별적 사회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인 임신, 출산으로 인해 주양육자인 여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런 경향은 여성들의 전생애를 거쳐 노동시장의 재진입과 경력단절을 반복하는 구조임.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적 노동시장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사업의 구체성) 경력단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직업정보 부족 등을 극복하고 직업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상담,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여성에 대해 구직동기를 고취하여 실제 구직활동 할 수 있도록 취업 전과정(상담-훈련-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을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취·창업진단, 교육,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한 취업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www.dream.go.kr](http://www.dream.go.kr))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리어상담사를 통한 교육·취업정보 등 제공
- 연간 국비 5억지원으로 '20년에는 446천명('19년 273천명 대비 63% 실적 증가)에게 온라인교육과 온라인진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임. 그러나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이 대체로 10대부터 20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사업 성과) '19년과 비교 시 '20년 새일센터 구직 및 상담 건수가 동일하며, 취업 연계 건수 또한 17.7만 건(여가부 내부 자료)으로 동일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호한 사업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음

- (취업의 질)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 고용 직종으로 하향 취업할 확률이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우 보다 상용직,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처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 41호 2019.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 영향분석 p 36~37, 국회입법조사처

- (취약계층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3개월, 90만원) 지급, 차상위 계층 경단여성에게 생계비 최대 400만원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진입 기회 확대

\* 여가부-신한금융그룹 MOU('18.1.)로 '18~'20년 50억원씩 총 150억원 규모 지원

\* '18~'20년 훈련수당 총 8천6백명, 생계비 총 189명 지원

\* 자녀양육·교육, 경력부족, 신용불량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유관전문기관 발굴·연계 등

○ (운영의 적절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및 운영, 여성 창업 전담인력 배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 \*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 ('16년) 25개 → ('19년) 49개 → ('20) 50개
- \* '사례관리' 서비스 도입·운영 : ('19년 최초) 10개소 → ('20년) 20개소
- \* 여성창업 전담지원 인력 배치 : ('17.下 최초) 30명 → ('20년) 40명
-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 ('19년) 35소 → ('20년) 60개소
- \* 상담, 경력개발, 돌봄서비스 연계, 직장적응 등 4만8천명 지원(전년 4만건 대비 19.2% ↑)
- \* 전문가 컨설팅, 기업환경 개선 지원 등 1,685개 기업 지원(전년 1,062개 대비 59% ↑)

- (실행계획) 새일센터는 크게 경력단절 예방사업과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나눠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초기에는 경력단절 재취업지원사업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나 비혼과 만혼이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경력단절의 문제가 복잡한 구조로 얹히면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운영 방향은 미래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함

○ 제도개선 노력

- (코로나19 극복)경력단절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고용 위기극복 위한 취업지원 강화 발표(4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고용 극복과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특히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고용위기에 처한 재직여성, 기업에 인사·노무, 심리·고충상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 (외부지적사항) 대체로 외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새일센터가 광역과 기초새일과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됨
- 비대면 고용서비스 시대에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이후 이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